

투데이 칼럼

단순 말 걸기의 효과

우리는 낯선 사람을 보면 처음에는 괜히 어렵게만 느껴...



김양욱 한국스피치면접컨설팅 대표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단순 접촉의 원리'라고 부른다. 어떤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는가...

된다. 어떤 말이라도 상관없다. 우선 말부터 걸고 보자. 물론, 대화할 때 두려움은 있을 수 있다. '비난 받을까?'

대해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상대방이 어떤 기분인지 알기 위해.' 말을 걸면 상대방은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인다.

예를 들어 동료나 부하 직원에게 "오늘 넥타이 멋진데."라고 말을 걸었다고 하자. 그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도끼질 하는 벌목 세계선수권 참가자들



지난 7월 31일(현지시간) 미 위스콘신주 헤이워드에서 제61회 벌목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도끼로 나무를 때고 있다.

'바르샤바 봉기 77주년' 거리에 모인 시민들



19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국기를 든 시민들이 바르샤바 봉기 77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1944년 8월 1일 나치 독일의 점령으로부터 폴란드를 해방하려던 저항군이 봉기했으나 약 두 달만에 결친 독일군의 진압으로 폴란드 저항군 1만6000여 명이 사망하고 민간인 2만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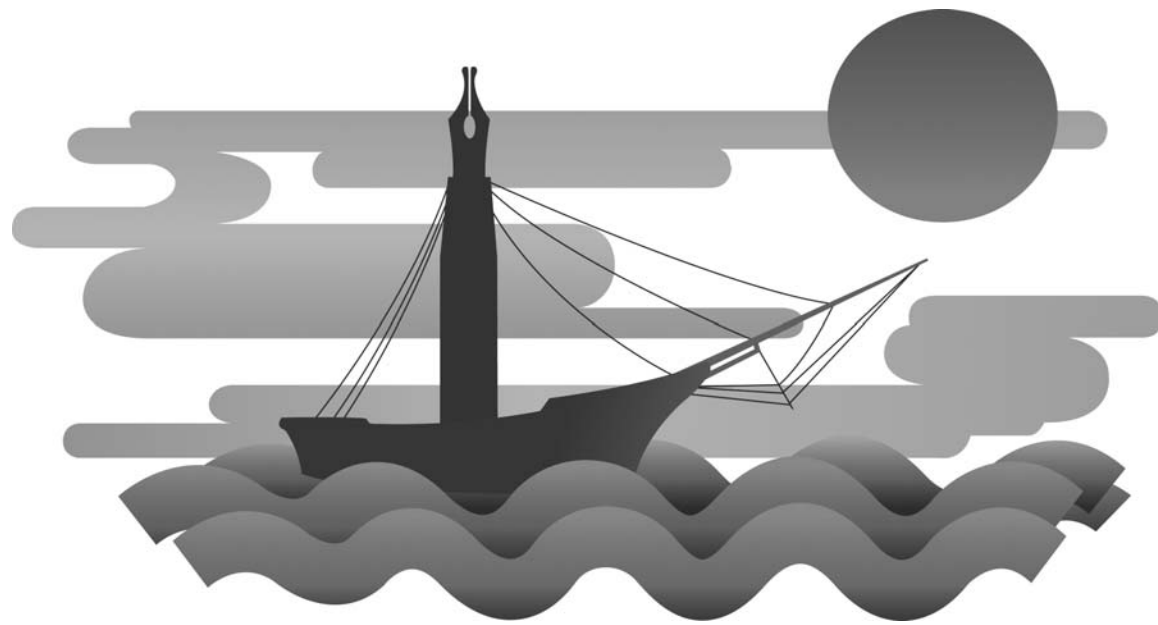
남북한 우정의 전시회

최근 국내에서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남북한 우정의 전시회가 열려 주목됐다. 전국 남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8일까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에서 남북평화를 염원하는 전시회를 열었다.

어느 유족급여 지급 논란

어느 유족급여 지급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이혼한 생모에게도 유족급여가 지급되자 아버지 측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